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하나님이나 돈이나

(마 6:19-24)

종교 개혁자 칼빈은 “오늘날 교회가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38 가지의 비유 중에 무려 16 가지를 재물에 대해 하셨습니다.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물질에 대해 견고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재물에 대해 금하지 않으신 것들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한 말씀이 없고,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욥, 요셉, 다윗, 모르드개, 아베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 빌레몬, 등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은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여름에 팥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저축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금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다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2. 재물에 대해 금하신 것들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았도다”(딤후 6:10).

돈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악의 뿌리가 되고, 이 뿌리로부터 온갖 악한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며 쌓아둔 물질이 귀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통해 안전을 구하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재물은 결코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큰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을 떠야 합니다(22-23절). 영원을 바라보는 눈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썩과 동록이 해하나 하늘의 창고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합니다(벰전 1: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만큼 힘을 다해 물질적 헌신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돈이나?”라는 질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질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껏 섬기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s it God or Money?

(Matt. 6:19-24)

The religious reformer John Calvin once said, “In the present day, the fact that churches have talked about money is not the matter, but their lack of explaining it in the right way is the matter.” Even Jesus used 16 parables about wealth among 38 parables in the Bible.

Money is a practical matter. We cannot live our life without money. Jesus does not leave out parables about money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so, all the more we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biblical view of money and material things.

1. The things which were not forbidden from wealth

In the Bible, there is not anything about forbidding one's possession, or any instruction forbidding private property. Beginning from Abraham to Job, Joseph, David, Mordecai, Japheth, Priscilla, Aquila, Philemon, etc, all possessed lots of property.

The book of Proverbs says, “Go to the ant, learn its way and be wise. It works and stores its provision in the summer with sweetness for the winter in which it cannot work”. When Jesus gave the miracle of five bread and two fish, He taught that they could not have any left over after the crowds ate. Like this the Bible does not prohibit saving or living a prosperous life. However, the Bible says that we should not put our hope on material things.

2. The things that were forbidden from wealth

Jesus strongly forbids us from living our life with the purpose of wealth.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Some people, eager for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ves” (1 Tim. 6:10).

Money itself is never evil, but our mind that loves money is the root of evil, and this root yields the evil fruits in our life.

The fact that we can love money means it can easily become our purpose of life. By beginning to find one's life worth living in accumulating material things, and beginning to think material things are worth seeking, it is easy to see how money can become a main purpose in our life. Thus most people are trying by any means possible to gain material things, and to accumulate wealth all the more. At the end, they start to worship the material.

Jesus forbids us from living our life wanting to obtain safety through wealth. Wealth never gives us a guarantee of a safe life.

Christians must live in the midst of hope and peace that cannot be bought with money. If so, first of all, we must leave spiritual blindness for the sake of our eternity (v. 22-23). Then we are able to see the truth that we are looking at eternity itself.

Therefore, we must store up for 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In this world, moth and rust destroy, but the heritage that never perishes, spoils, and fades is kept for us in heaven. (1 Pet. 1:4)

My beloved Christians!

Jesus sa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is does not simply explain offerings, but just as we devote ourselves to God, so we must also devote ourselves to the ways to do our best.

Before the question, “Is it God or money?” if we confidently choose God,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will give us also material blessing.

By having the right value of material things in this world, and serving God with all our strength, I earnestly hope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children to be used before God.

2012 사명자대회 뜨겁게 진행 중

매주 토요일: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VIP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자!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7]

(문 65) 신명기 24:1-4에서 모세가 가르친 이혼에 관한 것은 마가복음 10:2-12에서 예수님의 교훈과 고전 7:10-16의 사도바울의 교훈과 다른 것입니까?

(답) : 신명기서에서는 이혼에 대해 하나님의 인정이나 축복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현된 이혼을 단순히 인식한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어떤 이유로 싫어하거나 고통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혼증서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한 여인에게 "수치 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것을 말씀한 것은 음행을 가리킨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음행을 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는 벌써 죽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2:22-27) 이렇게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증서를 주어 내어 보내라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특별 조치였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치병에 걸린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이혼의 정당성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랍비 힐렐은 여자가 밥을 태우는 사소한 일의 실수를 범해도 이혼할 수 있다 했고 (Mishna, Gittin 9:10) 흥한 상처나 불구가 되었을 경우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대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것은 그들이 완악함으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 19:8, 막 10:5)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 19:9) 라고 하시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이고 잠깐 결혼은 음행한 연고 없이 어떤 이유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옛사람의 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이혼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의 이혼허용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전 7:10-16에서 한 말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50일 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함으로 사명을 받았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 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2년 사명자대회를 지난 주일 발대식을 가짐으로서 시작하였다.

2012년 사명자대회는 "7주간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11월 25일(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10월 13일~11월 24일, 7회)는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토요일특별새벽기도회(오전5시30분)"로 진행된다. 또한 VIP초청 새생명 축제가 11월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000명의 VIP와 1,000명의 방문자와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11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오전 5시에 진행된다.

WEA-WCC 대화의 장

- 10월22일 오전10시부터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

세계기독교의 양대산맥인 세계교회협의회(WCC, 1948)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1846)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총회를 갖게 된다. 한국교회가 받은 이 역사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복음화에 기여코자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원로목사)은 두 기관의 공식적 대표들을 초청하여 세계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교와 연합의 이해를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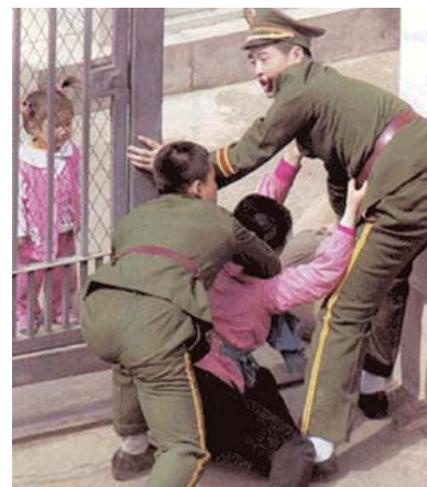
이날 학술원의 연례행사인 기독교 학술상 수여식과 학술원 정회원 추대식 및 연구교수 위촉식도 갖는다.

이종운목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토마스 솔마하박사와 김상복박사가 WEA를 대표하여 연설하고 마틴 로브라박사와 금주섭박사가 WCC편에서 발표한다.

종합토의 시간을 가져 두 기관의 민감한 신학논쟁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아 한국교회 뿐 아니라 전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모임이다. 역사적인 신학논쟁에 서울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여 세계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를 찾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이종운원로목사는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탈북난민북송반대와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회

-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 각3천명 출범대회- -10월25일(목) 오후2시-



주중 외국대사관에 진입하여다 중국공안에게 재지 당하는 탈북자 모녀 - 출처: 통일부 공식 블로그

중국을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시켜 공개 총살, 고문, 영아나태, 정치범수용소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반인륜적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일이 중단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국내외적으로 함께 할 양심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사단 3,000명을 결성하고, 장로단 3,000명과 여성지도자 3,000명을 출범시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한당 만나 고통당하는 탈북자 구출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구원하려는 운동을 하려 한다. 10월25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교회에서 여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는 이들의 모임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한다. 초청자는 이종운(통합) 김경원(합동) 김영현(기감) 이정익(기성) 최성규(기하성) 양병희(백석) 목사들로 탈북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다.

참관인 목사단, 장로단, 여성지도자단에 동참하실 분은 www.3000pastors.net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죄를 범하면 벌이 따라온다. 무조건 용서하거나 모르는 척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문제는 죄를 범해도 그 벌이 점점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과 1범보다 전과 10범이면 그 형량은 천양지차이다. 세상법정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같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한다. 이 정도의 죄야 눈 감아주실거야 스스로 판단하거나 지금 범하는 죄는 심판의 대상도 안될 것이라고 자기가 재판해 버린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도 눈감아주실거야 하면서 불감증까지 가진다. 더구나 남의 죄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죄도 묵인해 주는데 내가 범한 죄 정도야 죄도 아니라고 평가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 죄가 심판대 앞에 올려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참아 기다리시거나 회개하기를 원하실 뿐인데 그것을 우리 모두 역이용 내지 악용하고 있다.

결국 결론은 이것이다. 우리의 죄를 건수 따라 속속들이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되는 범주 안에 넣으신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은혜가 우선이고 먼저이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 있고 살 수 있다.

결국 죄는 벌보다 크지만 은혜는 벌보다 더 크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는 벌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죄와 벌 그리고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멀리해야 할 사명자이다.



원용규 집사(사명자대회 기도분과)

2012사명자대회 50일간 기도의 제단에 불이 점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어디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VIP(전도대상자),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끊임없이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각 교구, 다락방, 개인별로 자율 기도 신청자의 일자별, 시간별, 기도접수에 따라 50일간의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1. 기도하기 전 성경 1~2장 읽기 2. 다섯 가지 공동기도제목 기도 3. VIP를 위한 기도 4.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 5. 개인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5천 명의 VIP와 1천 명의 방문자와 3백 명의 결신자를 각각 품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마음을 쏟아 붙는 간절한 기도를 끈질기게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개인, 가정, 다락방 별로 50일의 기간 중 편한 날짜와 시간을 선정하여 기도회에 3회 이상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열리는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말씀받고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다음세대의 부흥을 소원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다니엘 기도회와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모든 다락방원이 VIP를 품고 기도하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다락방장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을 이루어 교회가 부흥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기회가 되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칼빈을 말한다. 칼빈은 루터나 쾰링거 등 동료들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개혁신학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신학자 필립 샤프는 루터와 칼빈을 두고 "루터가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킨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 글자를 새긴 사람이다"라고 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의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때에도 칼빈은 카톨릭 교회를 옹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1533년 어느 날 돌연히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을 걷어가는 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 갑작스런 전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도록 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므로 교회는 물론 세계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다. 칼빈은 부르짖었다. "아버지! 그의 희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그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지고 그의 죽음은 나의 속량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자신들을 위하여 쓸데없고 어리석은 방법들을 써 보았지만 당신은 거룩한 말씀을 등불과 같이 내 앞에



요한 칼빈

다시고 또한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로 하여금 예수의 공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치 않게 하셨나이다."

루터와 칼빈은 갖지만 이 시대에는 여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을 추구하는 제2의 종교개혁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7개의 신학회가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기하여(대표회장 이종운 원로목사)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고자 기독교 명저 출간, 종교개혁 학술연구, 학술

대회, 종교개혁정신에 입각한 교회연합운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부디 이 사업들이 자양분이 되어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도여러분께서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허속 권사(편집부)

“ 루터와 칼빈은 갖지만 제2의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 ”

사명자대회

사명자대회 홍보물 이렇게 이용하세요!

정치은집사(사명자대회 홍보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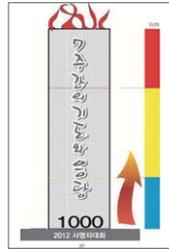
성도님들께서는 사명자대회의 홍보기획물을 다음과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VIP수첩입니다. 이 VIP 수첩에는 사명자대회 전반에 걸친 상세한 계획과 설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지 2~5P에 걸쳐 VIP선정 방법과 VIP를 위한 50일간의 기도 및 Present5운동의 전개 방법 및 체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매일 구체적으로 VIP를 위한 기도와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형상물입니다. 본당 2F 입구에 설치된 십자가의 형상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성도 여러분이 작성한 VIP의 명단이 전부 게재되어 이를 매번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VIP를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도의 불 제단입니다. 1층 웨민홀 앞에는 불



제단 모양의 기둥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번 사명자 대회의 공동기도제목과 자신들이 작성한 VIP를 위하여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기도하면 불 제단 기둥에 1회 1번씩 본인의 이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시에는 기도 노트에 게재한 이름을 별도 스티커에 작성하여 기도의 불 제단에 부착하여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시에는 기도횟수만큼 본인의 이름을 써서 내시면 됩니다. 기도의 불 제단은 3단계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성도가 점차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습니다.

넷째, 전도용 찬양CD와 포스트잇 입니다. 교회는 VIP초대 축제에 초청용 홍보물로서 서울교회 전용 찬양CD와 포스트잇 메모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CD를 통하여 다시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복음의 씨앗이 필수있도록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포스트잇 메모세트는 전도용으로 사용될 것이며, VIP초대 축제의 상세일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시간 변경 오후 8시 시작

지금까지 오후 8시20분에 시작되던 금요기도회가 지난 금요일 부터 오후 8시에 시작되었다. 사명자대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온가족이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금요기도회를 20분 앞당기는 것이며, 교회 주변 학원들이 끝마치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늦어도 9시30분에 끝마칠 예정이다.

교적 사진 촬영

14일(주), 21일(주) 10:00~14:00까지
- 104호에서 -

우리 교회는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 10월 14일(주)과 21일(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4호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대상은 교적부에 사진이 없는 서리집사 이상이며, 기존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성도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이 힘든 성도들은 사진을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이메일(cyc@seoulchurch.or.kr)로 보내주기 바란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4일(주) 들꽃교회 창립10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15일(월) 제5회 개혁주의생명신학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 18일(목) 탈북난민복송반대 및 북한구원 위한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20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전시 : 진현미 성도(6교구, 서동욱 집사 부인)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미술전 "FACO ART FESTIVAL" 10월 12일~18일,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B1 전시장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10.14) 바울선교회(10.21)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성경 암송대회

오늘 예선 : 교회학교별로 진행 / 본선 : 10월19일(금) 오후7시, 602호

매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암송대회가 교회 학교별로 열린다. 오늘 예선은 각 부서별 장소에서 예선이 나누어서 진행되며 본선은 10월 19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진행 된다.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

명, 동상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발표는 10월 21일(주) 순례자에 게재된다. 당일 오후 찬양예배시 시상과 암송발표가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에바다부 우수한 성적 거둬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국에서 약 5천 명의 청각, 시각, 지적장애인들이 참석하여 27개 종목의 경기를 한 결과 우리

교회 에바다부 성도 4명이 출전하여 다음과 같이 수 상하였다.

- 반재학 성도: 금 3개, 동 1개 · 이광원 성도: 금 1개, 은 2개
- 김하나 성도: 금 2개, 은 1개 · 장지현 성도: 금 1개, 은 2개

군부대 책보내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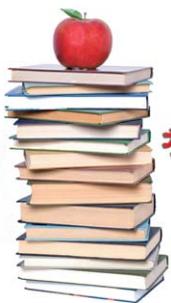
우리 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에서는 김명일 선교사(육군 25사단 방공포연대) 상송 포교회에 확보도서 1,000권을 목표로 하고 기증을 받고 있다. 기증 도서는 기독교서적 및 교양서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비전2020 기도 제1팀장: 김영식 권사(주일 오후 3시 20분 801호)
- 비전2020 기도 제2팀장: 김명심 권사(주일 오후 3시 20분) 306호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2. 온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대상자(VIP)를 정하고 11월에 있는 VIP초대 새생명축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4. 10/22(월) 오전 10시부터 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WEA-WCC 대회의 장을 통해 연합과 일치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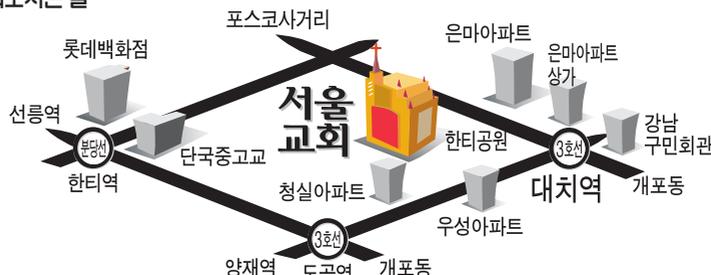


책! 책! 책!
책을 보냅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